‘온라인 선생님’ 취약 과목 콕콕 짚어주네

분야별 교육 전문사이트 살펴 보니

영어·수학서 내신·논술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로 큰 인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사이트들이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분야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전문 사이트의 경우 기출문제에서 논술첨삭, 수학 전문, 한자시험 대비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알면 유용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소개한다.

▲내신=**족보닷컴**(www.zocbo.com)은 전국 3천여개 초·중·고교의 시험문제 60만건을 모아둔 내신 시험대비 전문사이트. 이미 80만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들이 사이트를 이용했다.

2000년부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한 족보닷컴은 현재 지역별 단원 족보, 우리 학교 예상문제, 서술형 예상문제 등 내신시험에 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논술=**일교시닷컴**(www.1gyosi.com)은 국어와 언어 논술에 전문화된 교육 사이트. 사이트 접속순위 통계를 발표하는 랭키닷컴에서 국어·논술 분야 사이트 점유율 70%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 강사로 명성을 쌓은 조동기씨의 강좌를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을 사이트에 올리면 첨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논술의 법칙(www.casen onsul.co.kr)은 논·구술 실전문제, 논술 영역별 동영상강의, 온라인 첨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논술영역 스타강사인 이상수씨가 만든 **수에듀**(www.sooedu.com)와 곰TV가 스타강사인 이범씨를 영입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강의 서비스 **곰스쿨**(www.gomschool.com)도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영어=**이티하우스**(www.et-house.com)는 영어 전문 교육 기업인 능률교육이 지난해 7월 개설한 영어 교육 사이트. 사이트 개설 5개월여 만에 회원 수 100만명을 돌파해 주목을 받았다. 능률교육의 베스트셀러 교재인 토마토·리딩튜터 등을 기반으로 450여개의 온라인 강의와 400여개의 mp3 콘텐츠, 100여개의 영어훈련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1만원만 내면 사이트 내 모든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정액제를 시행 중이다. 다른 사이트의 강좌당 가격이 통상 3만~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가 사이트 내 어학센터에 개설한 ‘E-Scape’는 영어전용 토론 게시판. 매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글쓰기와 말하기 모두 영어로만 사용 가능하다. 말하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예나 강사가 직접 주제를 정해주고, 베스트 의견을 정해 첨삭과 음성강의를 제공한다.

▲수학=**스퍼트**(www.spurt.co.kr)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예비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전문 사이트. 현재 전문 학습상담자의 학습진단·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이매쓰(www.imath.tv)는 중고등 수학참고서로 유명한 ‘개념원리 수학’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자=**한자통닷컴**(www.hanjatong .com)은 한자시험정보·학습정보·모의고사·동영상 강좌 등 한자시험에 대비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사이트. 퍼즐게임, EBS한자프로그램 등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풍부하고 무료로 급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영어교사 워크숍 전남지역 중등 영어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2일까지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영어교육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강의를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초중고 ‘냉방 수업’

광주 12%·전남 27%

광주지역 초·중·고교 전체교실의 12.5%, 전남은 전체 교실의 27.6%가 재래식 난방시설로 인해 추위 속 수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체 교실의 12.5%인 2천71개 교실에 보일러·가변형 냉난방기 등 현대식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실의 6.8%, 중학교 교실의 13.9%, 고등학교 교실의 21.3%, 특수학교 교실의 2.8% 등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실의 난방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전체 교실의 27.6%에 현대식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또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교실의 절반 가량이 ‘찜통교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전체 1만6천542개 교실 가운데 8천399개(50.8%)에 에어컨·냉온수기·가변형 냉난방기 등 현대식 냉방시설이 돼 있지 않았고 전남은 전체 교실의 42.5%가 냉방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캠퍼스 소식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호응

동신대(총장 정기언)가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벌이는 ‘종합건강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일 동신대에 따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NURI)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 건강복지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이 지난달 22일부터 누리사업 협력 지자체인 나주시와 장성군 등 6개 시·군을 돌며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간호학과·운동처방학과·생활체육학과·식품영양학과·사회복지학과 등 5개 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합한 운동·영양·간호·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내놓고 있다.

또 비만도와 골밀도 측정 등 개인별 건강과 영양상담, 혈압 및 혈당 체크, 여가활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댄스, 웃음요가, 체조 등도 직접 전수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4일까지 제공된다.

한편 동신대는 건강복지서비스인력양성사업으로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누리사업 중형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2010년까지 75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자체와 官-學협정 추진

호남대(총장 이현청)가 인재양성,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1일 호남대에 따르면 최근 함평·장성군과 관학협정을 한 데 이어 화순·보성·담양·영광군 등 전남 6~7개 지자체와 협정을 추진중이다.

대학은 ‘릴레이 관학협정’을 마치는 대로 지자체들과 대학 내 호남발전연구원·평생교육원·전남도 교육청·기업 등이 참여하는 호남지역혁신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호남지역혁신센터는 지역인재육성·인력개발협력팀·지역핵심특화사업협력팀 등을 꾸려 자치단체별 맞춤형 특화사업과 핵심 정책개발, 아이디어 창출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재육성팀’은 초·중·고교생 대상 수학 및 과학캠프 등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과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 자치단체 행정요원을 위한 전략 및 기획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며 영농 후계자 정보화 교육, 웰빙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한국 사회 정착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

또 ‘특화사업팀’은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생산·가공·마케팅·유통 관련 정책, 문화관광사업 정책, 생태 자연관광 사업 정책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용교사 임용고시 8명 합격

광주여대(총장 오장원)가 미용교사 양성 산실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1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별로 실시된 2007학년도 중등 미용교사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14명 중 8명이 이 대학 미용과학과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였다.

합격자 8명은 전남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충북도 교육청 각 2명, 강원도교육청·제주도 교육청 각 1명 등이다.

정규 4년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미용학과정을 개설한 광주여대는 이로써 2003년 중등 미용교사 임용고시가 첫 실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각 교육청에서 선발한 총 20명의 미용교사를 모두 배출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8명을 합격시켜 5년째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광주여대 미용과학과는 학년별 성적 상위 17명에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수자에게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용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 미용교사는 물론 미용지도자 양성 산실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